

康有爲의 經學思想考

崔 完 植
(中文科 助教授)

一. 序 言

康有爲의 思想은 그의 經學에 對한 見解와 變法 理論 및 理想世界를 論한 大同思想 等, 세 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겠다. 그 中, 보다 重要한 面은 後兩者라 하겠으나, 本論文에서는 前者에 關하여 分析해 보기로 한다. 本章에서는 그의 生活 環境 및 思想의 形成에 對하여 略考하고, 第二章에서는 그의 思想의 淵源, 即 理論이나 思想의 形成에 決定的인 影響을 주었던 人物, 또는 事象에 對하여 그의 年譜를 通해 살펴 보겠으며, 第三章에서는 그의 代表的인 著書 中, 僞經考와 改制考 兩篇을 가려 그 意義와 問題點에 對하여 整理 分析해 보겠다. 그리고 結論에서는 그의 經學思想에 있어서의 功過에 關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19世紀의 末葉부터 20世紀의 初에 걸친 中國은 世界 近代史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어 所謂 半植民的, 半封建的인 社會로 轉落, 未曾有的 混亂을 겪었다. 이에 즈음하여 崩壞하여 가는 中國 社會를 背景으로, 中國의 悠久한 傳統을 세 時代 속에 維持 保存하면서 새로운 面貌의 中國을 이룩하고자 努力한 人物을 들기로 한다면, 于先 康有爲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는 洪秀全, 嚴復, 孫文 等과 더불어 1840年의 阿片戰爭 以後, 西歐 속에서 眞理를 찾고 배워 中國의 獨立을 爭取하고자 奮闘한 先進 人物 中의 한 사람으로, 清末 民初에 산 政治家이며 思想家이며 學者이다.

그러나, 康有爲의 政治 運動은 失敗로 끝난 셈이고, 그의 思想도 晩年에는 保守 反動으로 몰려 疏外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가 建議한 變法 維新의 政治理論과 그가 提唱한 儒敎의 經典에 關한 解釋, 및 世界觀은 오랜 傳統을 간직한 中國이 新生 中國으로 指向하는 轉換期에 있어서 劃期的인 役割을 하였다고 높이 評價할 수 있겠다.

康有爲는 清 咸豐 8年(1858) 廣東省 南海縣에서 出生하여 民國 16年(1927), 享年 70歲를 一期로 逝世하였다. 原名은 祖貽, 字는 廣夏 또는 更生, 號는 長素, 西樵山人, 또는 南海縣 出身이어서 南海先生이라고도 부른다.

康有爲의 出身地인 廣東省은 本是 中國에서 가장 먼저 西歐의 近代化 물결을 接한 고장이니, 西歐 속에서 眞理를 찾고, 西歐의인 文明에 눈길을 돌리려 든 人士가 많이 輩出될 수 있었던, 地理的인 特性을 지닌 곳이라고 볼 수 있다. 康有爲가 出生하기 8년 前에 太平天國

의 革命을 試圖하였던 洪秀全이거, 그리고 康有爲보다 8年 後에는 中國의 國父 孫文이 같은 廣東省에서 出生하였다. 다만 康有爲는 門閥이 좋지 못했던 洪·孫 兩人과는 달리 祖父가 經學者였고, 父親이 知縣이었으니, 그는 名門 出身인 同時에 地主 出身인, 좋은 環境에서 生長하였고 修學期를 거쳤다고 볼 수 있겠다.

康有爲는 어려서 父親을 어의었기 때문에 古來의 선비들이 그랬듯이 故鄉에서 經學을 공부하였고 祖父로부터 詩文을 배웠다. 그리고 18歲 때에는 廣東에서 學者로 名望이 있던 朱次琦한테 師事하였다. 朱次琦는 當時 다른 學者들과는 달리 所謂 氣骨이 있는 學者였던 바, 康有爲는 그로부터 朱子學과 陽明學의 精髓를 배웠다.

그러나, 뛰어난 才能과 奔放한 情熱의 所有者였고, 남달리 個性이 強하고 날카로운 個性을 지녔던 康有爲는 스승의 가르침에만 滿足할 수 없었다. 21歲 때, 그는 暫時 스승 朱次琦의 門下를 떠나 西樵山의 白雲洞에 蟄居하였으니, 이때 그는 이제까지 傳統派 儒學의 율을 벗어나 自己 世界에 沈潛하면서 自身이 앞으로 指向할 바 길을 摸索하게 됐던 것이다. 그리고 5年後, 26歲 때에도 다시 그는 自己 故鄉에 들이박혀 思索에 잠겼다.

이리하여 그는 自己를 束縛하는 封建社會의 規範에 反撥, 奔放한 思索이 趨向하는 대로 佛家·道家 및 墨子 等, 非正統派 系列의 書冊 等を 耽讀하였고, 또 阿片戰爭 後에 새로 出現한 「經世致產」을 提唱한 改良主義派의 論著라든가, 主로 自然科學 部面이긴 하지만, 새로운 知識을 傳해 주는 西洋의 書冊에 이르기까지 눈길을 돌렸다. 이렇듯 廣汎한 文獻을 涉獵할 수 있었기에, 또 銳利하고 血氣에 넘치는 感覺과 情熱을 지녔기에, 그는 時代의인, 社會의인 矛盾을 捕捉, 蒼生의 困苦를 가슴 아프게 여길 줄 알았고, 學問을 土臺로 政治分野에 強烈한 關心을 表明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果敢한 變革을 主唱하여 나름대로 理想世界의 具現策도 樹立해 보았다. 勿論, 그의 이와 같은 一連의 試圖는 그의 學問의인 土臺에 뿌리를 두긴 하였지만, 그는 學者의인 姿勢나 限界를 벗어나 政治的인 次元에서 自身의 思想이나 理論을 具現하고자 努力하였다. 아니, 보다 嚴格히 曰하면, 그는 理論의 具現을 위하여 努力하였다기보다 自身의 政治的인 設計를 위하여 學問이나 思想의 理論을 體系化하였고, 그의 合理化를 위하여 學問을 利用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기에 康有爲는 學者라기보다는 政治思想家로서 指稱된다.

二. 思想의 淵源

1. 時代的 背景

康有爲의 새로운 儒教 解釋에 있어서 學問上的 論據기 된 것은 今文經學이었고 公羊學이었다.

이 今文經¹⁾은 本是 西漢 武帝時에 學官을 設立하고 14博士를 두어 가르쳤던 經典으로, 古文經²⁾이 世上에 紹介되기 前인 當時로서는 孔教를 傳하는 唯一本이었다. 그러나 西漢末에 이르러 古文經이 出現케 되었고, 王莽의 新朝時엔 劉歆이 끈질기게 그를 推戴, 學官 設立을 主張하였으며, 이어 東漢末에는 馬融·鄭玄 등이 모두 古文經을 擁立하기에 이르자, 以後 今文經은 自然히 衰退하고 말았다.

이러한 樣相은 南北朝를 거쳐 唐代에도 마찬가지였다. 後晉의 杜預와 王肅이 그 실마리를 繼承하였고, 唐의 陸德明과 孔穎達 등도 모두가 鄭·王을 받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傳하는 十三經注疏도 東漢 古文家의 影響을 받은 속에 섞여진 것이다.³⁾

宋에 이르러 程·朱의 注가 새로 登場하여 漢唐의 注釋을 反駁, 從來의 經典 解釋을 一新하였지만, 清代에 와서는 六朝와 唐에 遡及하는 傾向을 빚었고, 閻若璩의 古文尙書 攻駁을 필두로 다시 東漢으로의 復古가 提唱된 속에 清末에까지 이르렀으니, 今文經은 實로 2,000年の 긴 期間 동안이니 古文經의 그늘 속에 묻혀 왔던 것이다.

今文經學에 對한 關心은 公羊學의 研究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몇몇 淸儒들의 著述을 통해 段階的으로 發展케 되었다. 于先 그 啓導的인 役割을 한 것으로 孔廣森의 公羊通義와 莊存與의 春秋正辭가 있었으며, 劉逢祿의 春秋公羊經傳何氏釋例가 그를 繼承하였다. 劉가 科學的인 方法으로 歸納, 所謂 ‘張三世’·‘通三統’ 등의 諸義를 發揚함에 이르러서는 公羊學 研究가 活潑하게 되었다. 더구나 阿片戰爭 以後 改良主義를 提唱한 龔自珍과 魏源의 出現으로 公羊學 乃至 今文經學은 크게 本格化된 셈이다. 그들은 當時 漸次 衰微해가는 淸政을 憂慮한 나머지, 一面으로는 政治를 批判하고, 一面으로는 保守派들의 無能을 罵倒하면서 學問的으로는 古文經學에 反旗를 드는 同時에 朱子學에도 反論을 부르짖고 나섰다. 今文經學에 對한 그들의 功은 實로 컸다. 비록 깊은 境地에까지 그 研究가 展開되진 않았지만, 康有爲로 繼承되는 今文經學의 開拓者의 役割을 하였음에는 틀림없다.

康有爲는 이와 같은 時勢를 背景으로 當時 기울어져 가고 있는 國政에 對하여 누구보다도 憂慮 痛恨한 나머지 自己가 救國濟民의 旗手가 돼야겠다는 使命感을 切感케 되었으며, 이를 遂行키 爲해서는 于先 學問의 基底를 今文經學에 두고, 그를 政治 乃至 社會 改革에 導入하여야 한다는 前提下에 從來 今文經學者들의 理論을 集大成, 今文經學의 中心 人物로 跳躍할 수 있었던 것이다.

1) 田何를 繼承한 施讐·孟喜·梁丘 등 三家의 易, 伏勝을 繼承한 歐陽生·大夏侯勝·小夏侯建 등 三家의 書, 齊·魯·韓 三家의 詩, 胡毋生·董仲舒를 繼承한 嚴彭祖·顏安樂 등 兩家의 春秋 公羊傳, 그리고 高生堂으로부터 繼承된 大戴德·小戴聖·慶普 등 三家의 儀禮 등이 있었음.

2) 費直이 傳한 易, 孔子의 後裔 孔安國이 孔子 古家의 壁에서 發見한 書, 毛詩, 春秋 左氏傳, 逸禮 39篇과 周官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科斗文字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古文(古文字)經이라 일컬었음.

3) 公羊傳의 何休注를 除外하고, 易은 王弼注, 書는 孔安國注, 詩는 毛詩鄭箋, 三禮는 鄭注, 春秋 左氏傳은 杜預注, 그리고 그 밖의 諸經도 東漢 古文家類의 說을 따랐음.

이 康有爲의 學術과 思想에 直接 큰 影響을 끼친 學者로는 朱次琦와 廖平,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으나, 이는 梁啓超가

「康先生少從學於同縣朱子襄(次琦)先生, 朱先生講陸王學於舉世不講之日, 而尤好言法制得失, 其治經則綜糅漢宋今古, 不言家法。康先生之治公羊治今文也, 其淵源出自川研(廖平), 不可誣也。」⁴⁾

라고 말한 비를 보아도 알 수 있으며, 그밖에 한 시림을 더 든다면 張延秋가 있다. 이례에 세 사람 및 그와 接觸한 西學의 關係 乃至 影響에 對해 略述코자 한다.

2. 朱次琦

祖父의 膝下에서 詩文을 배워 온 康有爲는 19歲 되던 해 鄉試에 參加하였다가 落榜, 失意에 차 歸鄉하여 當時 廣東地方에서 大儒로 알려져 있던 朱次琦의 門下에 들어가 修學을 하였다. 朱次琦는 九江先生이라 불리웠으며, 그는 康有爲 祖父의 親舊이기도 하였지만, 父親과 伯叔아버지라도 그에 師事하였다는 點에서 볼 때, 康有爲의 家門과는 아주 密接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朱次琦는 德行이 높고 羣書에 該博하였기 때문에, 康有爲는 그의 人品과 學術을 極口 高揚하여 顧炎武와 王船山에나 比較할 수 있다고 밀한 바 있다.⁵⁾ 그는 先聖의 大道를 本質的인 面에서 追求하고 修己愛人의 意義에 重點을 두는 한편, 氣節을 重視하는 氣風下에 學問을 主導한 碩學으로서, 無用의 高談이나 空論 따위를 排擊, 孔子에 歸宗함을 指標로 삼았던, 氣骨있는 學者였다. 康有爲의 學術思想이 一切의 歸結을 孔子에 두었음도 이에 起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禮山草堂에서 講學을 할 때 門徒들에게 強調된 것은 四行과 五學이었다. 四行이란 ‘敦行孝悌’·‘崇尚名節’·‘變化氣質’·‘檢攝威儀’를, 五學이란 ‘經學’·‘文學’·‘掌故之學’·‘性理之學’·‘詞章之學’을 밀히는 비, 이는 後日 康有爲가 長興學舍에서 講學할 때 設定한 教育의 綱領과 分野,⁶⁾ 即

〈學綱〉 ① 志於道：格物·克己·勵節·慎獨

② 挾於德：主靜出倪·養心不動·變化氣質·檢攝威儀

③ 依於仁：敦行孝悌·崇尚任卹·廣宣教惠·同體執溺

④ 游於藝：禮·樂·書·數·圖·搶

〈學科〉 ① 義理之學：孔學·佛學·周秦諸子學·宋明學·泰西哲學

② 考據之學·中國經學史學·萬國史學·地理學·數學·格物學

③ 經世之學·政治原理學·中國政治沿革得失·萬國政治沿革得失·政治應用學·羣學

4) 梁啓超著「論中國最近世學術思想之大勢」p. 78

5) 康南海自編年譜 p 7:「先生碩德高行, 博極羣書, 其品詣學術, 在漢水東萊之間, 與國朝亭林·船山爲近, 而德器過之。」

6) 梁啓超著 康南海傳 p 11-13

④ 文字之學：中國詞草學・外國語言文字學

의 母體가 되었음을 一瞥하여 알 수 있다. 곧 康有爲는 朱次琦의 教育指標와 學問의 理念을 直接 繼承하여 그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다시 그가 導入한 西歐의인 新學의 一面을 것들여 보다 進就의인 研究의 體裁를 樹立하였던 것이다.

康有爲는 當初 朱次琦의 높은 品德과 法度 있는 行動, 古今을 網羅한 博識, 그리고 學問의 姿勢와 方法에 이르기까지 깊은 感銘을 받았다. 그래서 그를 師事, 學問에 發憤 精進했다고 한다. 康有爲는 當時의 感激을 「如旅人之得宿, 盲者之視明」⁷⁾이라고 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康有爲가 朱次琦의 門下에서 修學을 하게 된 底意는, 첫째 그로부터 聖賢의 大道에 關한 깨우침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點과, 둘째 그가 이룬 바 宋學 系統의 人士였다는 點에 있다. 이는, 康有爲가 일찌기 孔子의 宗旨를 받드는 한편, 陸·王의 心學에 心醉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後日에 獨自의인 學問의 體系를 樹立하고 思想의 展開를 具現하였지만, 修學期에 있어서의 康有爲에게 朱次琦가 끼친 影響의 幅과 깊이는 자못 컸었다. 한 때, 스승의 門下에서 물러나 西樵山의 白雲洞에 蟄居, 門을 닫고 冊을 外面한 채, 靜坐하여 冥想으로 消日하였던 일도, 그리고 自身이 天地 萬物과 一體가 되는 幻覺을 가져 보고, 또 自身이 聖人の 境地에 서 있는 듯한 過大 妄想을 안아 본 일들⁸⁾은 모두가 朱次琦로부터 큰 꿈을 배웠고 淵源한 學問을 이어 받은 나머지, 얻게 된 自己 滿足이요, 보다 跳躍하고 雄飛해 보려는 野望이 생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意味에서 康有爲의 思想과 學問의 淵源을 朱次琦에게서 찾아 보는 일은 너무도 當然하다고 하겠다.

3. 廖平

康有爲에게 學問의 基礎를 傳授한 사람이 朱次琦였다면, 그에게 思想의 方向을 提示해 준 사람은 廖平이다.

廖平은 王闕運⁹⁾의 弟子로, 일찌기 春秋를 깊이 研究하여 著書로 ‘知聖篇’・‘開劉篇’・‘古學考’ 등을 남겼다.

光緒14年(1888), 康有爲는 오랜 동안의 蟄居生活를 清算하고 鄉試를 보러 가는 階梯에 朝廷에 第一次 上訴文을 올렸다. 康有爲는 그 上訴文에서 當時 當面하고 있는 國際的인 情勢의 推移로 보아서도 現實을 克服하고 打開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變法의 施行에 있음을 強調하고, 朝廷에서 그를 斷行할 것을 促求하였던 바, 이 무렵, 그에게는 큰 收穫이 있었

7) 康南海自編年譜 p. 8

8) 同上 p. 10 參照

9) 주로 公羊學을 研究하여 當時 名聲이 있던 學者였으나, 經學에 關한 큰 成就는 보질 못했고, 著書 公羊箋도 孔廣森 理論의 境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定說임.

으니, 곧 廖平과의 相逢이었다.

廖平은 <尊孔>을 強力히 主張했던 사람이고, 一面 <六藝>등은 모두가 現今에 있어서도 推尊되어야 할 經典으로, 決코 單純한 舊時代의 記錄으로 看做해선 안 된다고 力說하였던 바, 이와 같은 持論과 說法은 康有爲에게 자못 共鳴을 주었다. 그의 著論 中, ‘古學考’는 廖平이 2年前인 光緒 12년에 이미 刊行하였던 것인데, 康有爲에게 그가 北京에 머물고 있을 때, 이미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光緒 15年 12月, 康有爲가 廣東에 돌아와서 16年 廣州 雲衢書室로 遷居하였을 때, 廖平은 다시 그곳으로 康有爲를 訪問, ‘知聖篇’을 보여 주었던 바, 康有爲는 그때 다시 그의 學問에 感銘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理論과 見解에 瞭解 同調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學說을 自己化함으로써 自身の 學問과 思想을 體系화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廖平의 著書 ‘四益館經學叢書’ 중에는 康有爲의 代表的인 著述인 ‘新學僞經考’와 ‘孔子改制考’의 雛形이 이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康有爲의 學問上 理論의 根據는 廖平의 學說을 敷衍하고 潤色한 데 不過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至大한 影響을 받았던 것이다. 이 점은 梁啓超의 말을 보아도 明確하다.

「今文學運動之中心, 曰南海康有爲, 然有爲蓋斯學之集成者, 非其創作者也. 有爲早年酷好周禮, 嘗貫穴之著政學通議, 後見廖平所著書, 乃盡棄其舊說. ……廖平以治公羊聞於時, ……著四益館經學叢書十餘種, 頗知守今文家法. 晚年受張之洞賄逼, 復著書自駁, 其人固不足道, 然有爲之思想受其影響, 不可誣也。」¹⁰⁾

侯外廬는 廖平의 學術思想에 關하여 그 大要를 말함에 있어서 六個 段階의 變化가 있었음을 指摘 區分하였는 바, 그 中 第1, 2期만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¹¹⁾

第一期: 今學과 古學 二大 壁壘의 成立을 分析한 時期. 이때 그는 周公을 古學의 祖宗으로 삼았다. 孔子는 壯年期인 古學을 祖述하였지만, 晩년에는 今學을 創立하였다. 그래서 그의 壯年期 門人은 古學을, 晩年期 門人은 今學을 지켰는 바, 齊魯의 儒生은 今學派요, 燕趙의 儒生들은 古學派이다. 이와 같은 分派는 漢代에 이르러 뚜렷해졌으며, 相互 攻擊하여 獨占을 期했다. 이 時期에 있어서 廖平이 今古學을 함께 重視하여 어느 分派에도 치우치지 않는 思想을 가졌었다.

第二期: 今學을 擁護하고 古學을 排斥하였던 時期. 孔子한테 壯年·晩年の 變化가 없었다. 다만 今文學家의 創始인 뿐이며, 이른 바 古文學은 劉歆이 周公을 내세워 孔子의 地位를 篡奪한 策略으로 登場된 것이다. 孔子는 今學의 祖宗으로, 先師요 素王이며, 六經은 그의 가르침으로 孔子가 古代를 寄託하여 自己의 理想을 宣布한 것일 뿐이다. 이 時期에 있어서 廖平은 劉歆과 古文學을 排斥하고 <尊孔·尊今文學>의 理論을 主張하였다.

康有爲는 中國 學術의 發展이 2個의 支脈, 卽 心學을 爲主로 한 宋學과 訓詁를 爲主로

10) 梁啓超著 清代學術概論 p. 56

11) 近代中國學說史 p. 689 參照

한 漢學을 通히 展開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兩派의 根源은 孔子에 두었으며, 그 中 宋學은 論語·孝經에 比重을 두고 朱熹를 嫡嗣로 하여 <義理之學>의 發展을 指標로 하였고, 漢學은 春秋의 公羊·穀梁 兩傳에 比重을 두고 量仲舒를 嫡嗣로 하여 <經世之學>의 發展을 指標로 삼았다고 보았으니, 이는 廖平이 第一期에 가졌던 見解와 너무도 相似하다. 그리고 <新學(僞經考)>를 著述, 劉歆과 古文學에 反旗를 들었으니, 이는 廖平의 第二期 學說과 完全히 一致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볼 때, 廖平의 思想이 비록 當時에는 刮目할 만한, 劃期的인 意義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해도 그것이 康有爲에게 傳授되고 나서는 세로이 改造된 體系의 方法下에서 整理 集成되어 終當엔 中國 近代의 思想界에 極大한 影響을 끼쳤으니, 康有爲의 學術思想 形成의 淵源은 廖平에게서 찾아 마땅하다 하겠다.

4. 張延秋

康有爲 思想體系의 樹立과 傳統學問의 方向 設定에 直接的으로 크게 影響을 준 사람으로 는 위에서 言及한 朱次琦·廖平 以外에 張延秋가 있다.

康有爲가 그와 처음으로 만난 것은 光緒 5年, 22歲 때였다. 朱次琦의 門下에서 나와 西樵山에 塾居하면서 마침 道·佛家의 書籍을 耽讀하고 있었는데, 當時 北京에서 編修官으로 있던 張延秋는 朝廷 人士 4, 5名과 함께 西樵山에 놀러 들렀다가 遇然히 相逢케 됐다. 張延秋는 北京에서 文學으로 盛名이 있었던 사람이다.

康有爲는 그로부터 當時 京朝의 雰圍氣와 當代의 人物 및 光緒·咸豐·同治 年間に 있었던 事例 등, 廣汎한 當代 政治 및 時事에 關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서로는 學術的인 討論을 展開하면서 時間을 엮었다. 兩人은 함께 我執과 氣僻이 있어서 討論을 하다가 相互 見解에 衝突이 있을 때면 큰 소리로 非難하고 자리를 뜨기도 하였다 한다. 그러나 張延秋는 사람들에게 康有爲를 極口 稱讚,

「來西樵但見一土山, 惟見一異人。」

이러고 하였던 바, 이로부터 廣東地方의 士大夫들은 康有爲를 再認識케 되었으며, 康有爲가 張延秋의 爲인이 큰 그릇임을 알고 自身の 著書를 傳해 주자 그는, 粵中에서는 볼 수 없는 文章家라고 稱讚해 마지 않음으로써 兩人의 友誼는 더욱 두터워졌다고 한다.

그로부터 康有爲는 北京에 가는 機會가 있을 때마다 그를 訪問하고 議論을 展開, 말을 쓴 눈으로 밝히곤 하였다. 아뭏든 康有爲는 그로부터 많은 것을,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래서 康有爲는 그를 評하여

「張君聰明絕世, 強記過人, 神鋒郎照, 談詞如雲。」

이라고 밀히고, 이어 그로부터 많을 것을 배웠음을 肯定,

「나는 朱九江先生을 師事함으로부터 聖賢의 大道에 關한 실마리를 깨우칠 수 있었고, 張延秋先生을 사침으로부터 中原의 文獻에 關한 知識을 널리 傳達 받을 수 있었니」

고 밀혀있다.¹²⁾ 그리고 그의 詩句에

「南望九江北京國, 拊心知己總辛酸。」

라고 叙述한 것은 그를 잊지 못해 읊은 것이다.¹³⁾

當初 困苦에 빠지 허덕이는 蒼生의 救出을 自己의 任務라고 생각해 온 康有爲는 이 무렵부터 더욱 天下 經綸의 抱負를 굳히게 된 것이다.

5. 西 學

위에서는 康有爲의 學術思想에 影響을 준 세 人物을 내세워 그와의 關係 및 系統의 淵源에 關해 叙述해 보았거니와, 本節에서는 康有爲가 接한 西學에 對하여 그 大要를 一瞥코자 한다.

康有爲가 最初로 西學에 接하게 된 것은, 그가 朱次琦에게 師事하기 前인, 同治 13年(1874), 17歲되던 때였다. 그는 群書를 涉獵하다가 瀛環志略과 地球圖를 처음으로 보고 世界의 情形과 地球에 關한 知識을 얻을 수 있었다 한다.¹⁴⁾ 그리고 光緒 5年(1879) 22歲 때에는 張延秋로부터 影響을 받은 나머지, 天下 經綸의 큰 抱負를 안고, 周禮王制·太平經國書·文獻通考·經世文編 등을 逐次로 閱讀하였는데, 그때 西國近事彙編·環游地球新錄과 및 그밖의 洋書 數種을 보게 되었고, 旣而 香港에 들렀다가 西歐人의 美觀한 邸宅이며 整潔한 道路, 嚴格한 治安 등을 目睹하고는 세상 西人들의 治道에 法도가 있음을 切感, 다시는 옛날처럼 그네들을 夷狄視해선 안되겠다고 느꼈으며, 그 뒤로 康有爲는 다시 海國圖誌·瀛環志略 등 書를 읽었고 地球圖를 購買하는 외에 漸次로 西學에 關한 書籍을 사 들이는 同時에 西學의 基礎에 關해 講學을 하였다 한다.¹⁵⁾

이리하여 康有爲는 그 後 數年 동안, 一面으로는 傳統學問의 進展을 爲해 經史의 當代 政治에 關한 文獻 및 佛典에 이르기까지 廣汎하게 研讀하면서, 一面으로는 많은 洋書를 購入 耽讀케 되었다. 그리고, 光緒 8年(1882) 25歲 되던 해엔 北京에 가서 鄉試를 치르고 돌아오는 歸路에 上海를 經由, 그곳에서 西歐人들의 治術에 關해 認識을 새로이 하고 다시 많은 洋書를 購入해 가지고 歸家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그로부터 康有爲는 西學에 關한 講

12) 康南海自編年譜 p 11 「吾自帥九江先生而得聞聖賢大道之緒, 自友人延秋先生而得博中原文獻之傳。」

13) 同上 p 10·11

14) 同上 p.7 參照.

15) 同上: p 10·11 參照.

論을 本格的으로 하게 됐고, 從來 가졌던 自身の 넓은 見解를 털어 버리게 됐다 한다.¹⁶⁾

이 段階에 이르러 그의 學問은 完全히 國學과 西學이 결합된 속에 學問 理論이 形成 樹立돼 가고 있었으니, 國學으로부터는 儒·墨·佛家의 理論을 바탕으로 하였고, 西學으로 부터는 基礎的인 自然科學, 歷史·地理學, 宗教 知識에 關한 理論을 爲主로 하였다. 그가 講學할 때의 學科 設定에, 萬國史學·地理學·數學·萬國政治沿革得失·政治應用學·外國 語言文字學 등을 두었음은 그 좋은 例이다.

本來부터 가지고 있던 經國濟世의 理念 위에 다시 西學으로 넓혀진 그의 知識은 그로 하여금 宇宙에 對한 關心으로 飛躍을 하게 되었다.

「宇宙란 元氣에 依해 形成되었다. 元은 本體이고 陰陽은 作用이다 宇宙의 크기에는 限界가 없으며, 宇宙 안에는 서로 다른 境界가 있으니, 이른 바 天界·星界·地界·身界·魂界·血輪界가 그것이다. 宇宙는 勇·禮·義·智·仁의 德으로 運用된다.」¹⁷⁾

이는 그의 宇宙에 對한 見解요, 持論의 一端이다. 여기에서 그는 重要한 著想을 하게 되었으니, 人類는 나서부터 平等하다는 觀念과 世界는 漸次 進化하여 大同化의 길로 指向하고 있다는 心證을 굳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賦與된 最大의 責任은 衆生들을 極樂 世界로 引導하여 주는 일이며, 이 極樂世界는 現實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니 現實인 地球上에 出現될 大同世界에 具現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와 같은 그의 思想은 그가 後日 大同書를 쓰는 데 있어서의 直接的인 理論의 根據가 되었다고 볼 때, 西學은 康有爲의 思想 形成에 이주 큰 몫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 것이다.

三. 理論의 展開와 著書

激突하는 時代에 태어났기에 넘달라 愛國의 情熱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좋은 家統과 師承을 가졌기에 남달라 傑出한 學者의 地位에 오를 수 있었던 康有爲였다. 그래서 그는 그 情熱과 學問을 바탕으로 크더큰 志業의 實現을 꾀하였다. 그 範圍는 實로 廣博하여 政治·經濟·社會·教育 등, 온갖 分野에 亘하여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國是의 定立, 立憲의 提議, 國會의 開設, 官制의 改革, 言論의 暢達, 科擧의 廢止, 學校의 設立 등의 建議를 서슴없이 開陳하였고, 平等主義에 立脚한 理想 社會의 建設과 社會 福祿面에 力點을 둔 具體的인 立案을, 그리고 2,000年間이나 지켜져 온 保守學派에 대한 攻駁을 展開하였다.

康有爲의 이와 같은 一連의 改革運動은 모두가 날카로운 그의 筆鋒에 依해 表現되었으니, 그가 平生에 걸쳐 펴낸 著作 또한 實로 尠大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1976年 臺北 宏業書

16) 同上 p 12·13 參照.

17) 康南海文集 天論 p 50 參照.

局에서 刊行한 그의 遺書彙刊이 大同書를 包含하지 않고도 22冊이나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 中, 그의 理論의 展開를 보여 준 代表的인 著作으로는 ‘新學僞經考’ · ‘孔子改制考’ · ‘春秋量氏學’ · ‘四書注’와 ‘大同書’ 등이 있으나, 그의 經學에 關한 見解 및 思想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新學僞經考’와 ‘孔子改制考’인 바, 本章에서는 이 두 著書에 局限, 그 意義와 目的 및 學界에 미친 影響과 價値를 分析 考察하면서 著書를 通해 볼 수 있는 그의 思想을 闡明해 보기로 한다.

1. 新學僞經考

康有爲가 新學僞經考를 著述한 것은 光緒 17年(1891), 그가 故鄉에 돌아온 지 2年째 되던 해이다. <新學>은 王莽이 統治한 新朝의 學이란 뜻이요, 僞經이란 王莽을 받들기 위해 劉歆이 僞作한 經典이란 뜻으로, 康有爲는 이 著書를 通해 正統派 儒學의 典據로 삼는 古文 經典은 漢朝를 纂奪한 王莽의 <新>政權을 合法化하기 위하여 劉歆에 依해 僞作된 것으로서 今文으로 씌어진 經典이야 말로 孔敎를 傳授하는 眞經이리 하고 證據를 提示하면서 實證하였다.

本來 經學에 關한 研究는 清朝를 기치는 동안 實로 大盛하였다. 皇清經解의 그 續編에 收錄된 바 書籍은 都合 389種, 2,727卷이나 되거니와 많은 學者들에 依해 詳細히 考證하는 作業이 進行되어 왔다. 그러나 一面, 每書에 대하여 제각기 問題點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眞僞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疑惑을 免할 길이 없었고, 게다가 다시 今文學派가 고개를 들고 正面으로 古文經에 대한 攻擊의 불꽃을 튀기기에 이르러서 今古學派의 對立은 本格化 되겠다.

康有爲는 남달리 古文經에 대해 懷疑를 가져 온 사람이며, 그 위에 다시 廖平의 影響까지 받고 나선 集中的으로 古文經에 대한 考證을 展開, 光緒 16年(1890)에 「王制義證」·「毛詩僞證」·「周禮僞證」·「說文僞證」·「爾雅僞證」을 著述하였고, 이어 翌年에 「新學僞經考」를 著어 發表하였던 것이다.

梁啓超는 新學僞經考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였다.

- 1) 西漢의 經學에 있어선 이른 바 古文이던 것이 없었으니, 오늘날 말하는 古文이란 모두가 劉歆의 僞作이다.
- 2) 秦始皇이 焚書를 할 적에 六經은 被害를 받지 않았다 漢代의 14博士가 傳授한 것은 모두가 孔門의 尼本이다.
- 3) 孔子 때에 使用한 文字는 바로 秦漢代의 篆書이다. 따라서 文字를 가지고 今·古文의 區別이 있을 수 없다.
- 4) 劉歆은 自身이 僞作한 痕跡을 씻으려 했다. 그래서 校中에서 秘書할 적에 一切의 古書에 對해 시 어지럽히 놓은 바가 많다.

5) 劉歆이 僞經을 만든 까닭은 王莽을 도와 漢朝를 篡奪하려는 데 있었으므로, 于先 孔子의 微言大義를 湮滅시키고자 꾀하였다.¹⁸⁾

그리고 康有爲가 新學僞經考에서 糾明한 六經¹⁹⁾의 範圍를 그의 理論에 立脚하여 살펴 보면 大略 다음과 같이 限界를 그을 수 있겠다.

春秋：公羊·穀梁 兩傳만을 認定한다. 左傳은 劉歆이 國語에서 베껴낸 것이 많으므로 僞經이다
 周易：繫辭의 上下 兩篇만을 認定한다. 十翼 中 其他 八篇은 모두 僞作이다.
 禮記：高生堂이 傳承한 17篇만을 認定한다. 逸禮·周官·明堂·陰陽 등은 僞作이다
 詩經：305篇만을 認定한다 毛詩는 僞作이다.
 書經：伏生の 28篇만을 認定한다. 孔安國의 古文尙書는 僞作이다.

康有爲가 이와 같은 理論의 追求를 敢行할 수 있었던 緣由에 關係서는 3가지 側面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그가 少年 時節, 卽 그에게 가장 重要한 時期리고 말할 수 있는 學問의 醞釀期에 傳家의 學統인 公羊學에 對하여 祖父로부터 授業을 받았고, 이어서 亦是 公羊學派의 傳統을 繼承한 廖平으로부터 學問의 見識을 넓힐 수 있었던 同時에 그의 著述을 통해 感銘을 받았으니, 康有爲는 그의 出身과 學問의 素養으로 보아도 當然히 公羊學을 指向, 그위에 心血을 쏟고 그 속에서 學問의 結實을 追求치 않을 수 없었을 것임을 指摘할 수 있다.

둘째, 康有爲뿐만이 아니라, 淸朝 末期의 學者와 思想家들에게는 當時의 趨勢가 孔子의 權威나 儒教 否定을 許容치 않았다. 따라서 基督教에 觸發되어 農業革命을 일으킨 洪秀全의 境遇에 있어서도 孔子의 絶對性에 懷疑를 하면서도 孔子와 하느님의 가르침을 同一視함으로써 士子의 權威를 肯定하였고, 三民主義를 提唱한 孫文도 孔子를 是認하는 土臺 위에 그 理論의 實踐을 追求하였다. 이 두 例가 證明하듯, 淸末 變革의 論理는 孔子를 否定하는 面보다는, 오히려 孔子에 關한 새로운 解釋에 바탕을 두고 經學의 理論을 展開하여야만 學問의 眞價를 具現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指摘할 수 있다.

셋째, 孔子改制考를 著述하기 위해서는 先行 作業으로 于先 今古文에 關한 自身の 持論을 定立하여야겠고, 이울러 孔子 追尊 立論의 根據를 밝혀야 했다는 點을 들 수 있으니, 康有爲가 遂行한 學問의 歸結은 結局 學問에 沒될 않고, 보다 理想的인 思想의 具現에 있었기 때문에, 理想을 具現하기 위한 方便으로 孔子改制考의 著述이 必須的이었고, 孔子改制考의 著述을 위해서는 不得不 新學僞經考의 著述을 先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임을 指摘할 수 있겠다.

康有爲의 新學僞經考가 學界에 미친 影響은 자못 至大하다. 于先 그는, 淸代 傳統的인 學問의 方法이 그랬듯이, 理論을 展開함에 있어서 每項마다 歷代의 典籍을 網羅하여 徹底

18) 梁啓超著 淸代學術概論 p 56. 參照

19) 樂記는 失傳되었으므로 言及치 않았음.

하고 充分한 根據를 提示해 가면서 考證의 完璧을 期했다. 그리고 그는 經典 解釋을 根本부터 否定, 立論을 展開하였지만, 嚴正한 學者의인 姿勢로 臨하여 明瞭한 論斷과 迫力 있는 說得力을 驅使하였기에 學界에 큰 波紋을 일으킬 수 있었다.

梁啓超는 그의 影響을 두 가지로 要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古文學의 範疇에서 傳統性을 傳承해 온 清學의 經典 解釋을 뿌리부터 搖動시켜 놓았다는 點과 둘째, 一切의 古書에 對하여 새로이 檢討하고, 그 價値를 糾明해 했다는 點을 들 수 있다.」²⁰⁾

이는 實로 當時 學術思想界에 일 旋風이 아닐 수 없음을 指摘한 말이다. 梁啓超는 그리고 이어

「이이말로 思想界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회호리바람이었다」

고 比喩하였다.

康有爲가 이 新學仍經考를 發表한 目的은 어디까지나 古文學派를 打倒하고 今文學을 唯一 經典으로 追尊하는 데 있었던 것이고 보면, 清朝 知識層에게 上述한 비와 같은 影響을 波及시킨 것만으로도 一端은 著述의 目的이 達成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一面으로는 古文學派로부터 強한 反駁을 받았고, 또 事實上 그가 遂行한 考證의 方法이나 立論의 過程에 있어서 적지 않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批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新學仍經考에서 問題가 된 가장 代表的인 일은 考證을 展開하는 過程에서 無理한 獨斷을 敢行하였다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그 例를 몇 가지 들어 본다면 :

첫째, 春秋 左傳에 對한 否定이다. 春秋 左傳은 記事를 爲主로 하고 있기 때문에, 司馬遷이 十二諸侯의 年表 敘述을 할 적에도 左傳을 根據로 하였다. 미라시 司馬遷 當時에 이미 左傳이 傳하고 있었을 터인데도, 公羊傳·穀梁傳만을 是認, 左傳을 一言之下에 劉歆의 僞作으로 돌린 일은 妥當치 못한 持論인 것으로 思料된다.

둘째, 康有爲가 古文經을 僞書로 斷定함에 있어서 가장 根據가 됐던 文獻은 史記였다. 즉, 그는 考證하는 過程에서 史記의 記述을 引用, 그를 마킹으로 自身の 持論을 펴곤 하였다. 그리하여 史記에 言及되지 않은 事實에 對해선 모두 劉歆이 僞作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史記 속에 言及한 古文이런 대목에 가선 서슴없이 劉歆의 插入한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이런 論法은 漢書의 境遇에 있어서도 同様하다. 그는 間或 漢書를 引用하여 自身の 說法을 展開하였는데, 漢書의 敘述이 自身の 論理에 符合하지 않을 때면 그것은 僞作된 內容이라고 指摘하였다.

即, 그는 먼저 一聯의 是非 基準과 假設을 設定해 놓고 自身の 그 基準과 假設에 맞추어

20) 梁啓超著 清代學術概論 p 56 「此實思想之一大颶風也。」

持論을 展開한 것이다. 이외 같은 考證法은 아무리 그 姿勢가 嚴正하고 展開기 徹底하여도 사람들을 信服시키기엔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後日 그가 保守派, 正統派에 依해 所謂「惑世誣民」이란 罪目으로 彈劾을 받게 됐고, 드디어는 出版 禁止란 受難을 겪었던 것도, 그의 지나친 論斷이 빛은 結果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다.

2. 孔子改制考

康有爲는 新學僞經考를 發表하고 나서 5年째 되던 해인 光緒 22年(1896)에 다시 孔子改制考를 世上에 퍼 내었다. 그러나 그 著述 計劃은 일찍부터 세워졌으니, 그가 廖平을 만나 그로부터 學術思想에 關한 많은 助言을 듣고서 構想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孔子改制考의 著述은 新學僞經考의 著述과 並行하여 거의 同時에 推進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僞經考가 完成되었을 무렵엔 改制考의 基礎 作業도 遂行되었을 것으로 思料된다.

孔子改制考의 著述은 新學僞經考와 함께 그기 攄立하려는 今文經에 對한 價値를 끌어 올리고 反面에 古文經을 推戴하는, 이른 바 正統派에 對한 挑戰이라는 同一한 目標 意識에서 遂行된 作業이었으니, 結局 兩書는 別個로 看做되어선 안되며 姉妹編, 或은 正·續編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兩書는 共に 正統派 儒學에 對해 正面에서 그를 否定하고 새로운 儒教 解釋을 통해 今文學의 理論을 合理化하는 데에 主目的이 있었다고 하겠거니와, 僞經考에서는 考證을 통해 劉歆을 排除함으로써 잘못 認識된 孔子의 微言을 浮刻시키는 作業을 遂行한 셈이고, 改制考에서는 孔子를 歷史의 豫言者로 보고 孔敎의 創始者로서 絕對視하자는 意圖를 밝혔다.

改制考를 通하여 把握할 수 있는 理論의 主旨를 檢討해 보면 大略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

첫째: 周末에 孔子를 비롯한 16系類의 諸子들이 함께 일어나 各自 敎派를 創立하고 託古改制를 하 있지만, 世人들을 따르게 할 만한 一定한 學說이 없어서 百家爭鳴의 局面을 形成하고 말았다.

둘째: 孔子는 當時 魯를 根據地로 儒敎를 創立하였던 바, 戰國時代로부터 以後 800年間, 天子며 大夫, 學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孔子를 制法의 王으로 推尊하였다. 그리하여 新王·素王·文王·聖王·先王·後王으로 指摘되었으며, 三代의 制度를 寄託하였다.

셋째: 孔子가 儒敎를 創立한 後로, 그의 弟子들은 그의 道를 믿어 그의 가르침을 傳하여, 或은 書冊, 或은 口傳의 形態로 天下에 流傳된 바, 온갖 禮俗이나 社會 制度 등은 모두 孔子가 創始한 것이었다.

네째: 六經은 모두 孔子가 著作한 것이었으나, 後日 劉歆의 僞書가 出現한 以來로, 孔子는 先師로 格下되었고, 그의 功은 周公에게 돌려 先聖으로 推戴케 되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託古改制說>의 論旨는 어떤 必要性에 立脚하여 主張된 것이었을까?

이에 對해선 몇 가지 側面에서 分析해 볼 수 있겠다.

첫째, 現在의 것보다는 옛 것을 값있게 여기고 貴重하게 생각하는 것이 人間의 常情이기 때문에 託古의 方式을 考案해 내어 寄託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所重히 만들게 하는 데에 神祕로운 奏效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둘째, 根據가 缺如할 때 사람들은 信憑하러 들지 않으므로, 的確한 根據를 提示, 信憑을 사 보려는 目的下에 先王의 이름을 빌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孔子는 著述을 통해 問或 時政을 批評하였거니와 그와 같은 일로 어떤 禍害를 불러 일으킬 지도 몰라 安全策을 講究하는 手段으로, 或은 口傳이나 微言을 통해서, 或은 託古의 方式을 說破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著述의 動機나 必要性이 어쨌든, 그가 孔子改制考를 執筆한 데는 뚜렷한 目的이 있었으니, 그것은 當時 政治社會의 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思想的인 提言을 통해 人類 進化의 推移를 깨우쳐 주려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孔子改制考를 통해 康有爲가 闡明하고 力說한 孔子 創制說 中, 大장 核心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制度란 그때그때 時代에 副應하여 變革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三世說이요, 또 하나는 歷史의 發展 進歩에 主眼을 둔 進化論이다. 그의 이와 같은 思想의 淵源은 前章에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그의 修學期, 思想의 醞釀期에 쌓아 올린 學問의 土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傳統的인 經學에 깊은 教養과 研究를 쌓은 外에, 西學에 對해서도 幅 넓게 涉獵하여 名實 共히 中西學을 兼全, 進就的인 學問의 方法으로 時勢에 對應하였던 것이다.

보다 直接的인 契機를 考察해 본다면, 康有爲가 當初 進化論 思想의 體系의인 理解를 하게 된 것은 嚴復의 天演論 翻譯 草稿를 읽고 나서라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西洋의 歷史進化論을 中國 歷史의 範疇 안에서 適用시켜 새로운 理論의 展開 方案을 摸索한 나머지, 孔子의 六經을 통해 그 根據를 찾게 되었다.

康有爲는, 新學僞經考에서 唯一經으로 立證한 今文經은 孔子가 假託하여 創制를 위해 直接 著述한 것이며, 그리고 孔子는 今文經, 特히 春秋公羊傳을 통해 歷史는 <據亂之世>로부터 <昇平之世>로, <昇平之世>로부터 <太平之世>로 推移하는 것이라는 歷史 變革의 大義를 傳하였다고 主張하였다. 이것이 所謂 <三世之說>이다.

이 三世說은 康有爲가 孔子改制考의 著述에 臨하여 着想한 語彙이다. 當初 그는 易經을 推崇한 나머지 易經 本來의 本質인 同時에 清末 改良主義派 革新論의 論說였던 變易에 主眼을 두어 所謂「窮則變, 變則通, 通則久」의 道理에 土台를 두고, 公羊傳에 보이는 <所見世>・<所聞世>・<所傳世>를 何休가 바꾸어 指稱한 <據亂世>・<昇平世>・<太平世>란 語彙를 引用하고, 게다가 禮記 禮運篇에 이른 <少康>・<大同>의 意味를 곁들어 使用하였던 것이다. 그가 光緒 21년에 올린 第四次 上訴文 中에 <三統>이란 말은 이 三世와 相應하는 말이다.

그 上訴文에서도 見解를 窺知할 수 있다.

「옛날에 孔子는 春秋를 지어 三統을 밝혔고, 또 周易을 지어 그 變通性을 말했습니다. 三代時엔 黑白과 子丑이 서로 달랐지만 모두 施行할 수 있었고, 陰陽의 進退循環이 變通된 後에 비로소 長久할 수 있었습니다.」²¹⁾

여기에서 말한 三統이란 夏殷周 三代의 王朝가 各其 다른 制度를 採擇, 夏는 歲首를 寅月, 殷과 周는 丑月·子月로 定하고, 이를 人統·地統·天統이라 한 데서 비롯한 말이다. 이렇듯 孔子는 그때그때 時代에 適宜한 變法, 即 制度的인 改革의 必要性을 三代를 빌어서 말했다고 康有爲는 前提를 設定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進化論을 깨우친 後로는 單純히 循環論에 머물고 있던 舊來의 變易思想에서 一步 前進하여 世界는 人類의 理想郷인, 未來의 大同世를 指向하여 進化하고 있다는 發展的인 歷史觀을 가지게 된 것이다.

梁啓超는 이 孔子改制考의 價値에 關하여 4가지 項을 들어 말하였다.²²⁾ 그 要旨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 1 古書를 가르칠 때에는 章句의 訓詁·名物·制度 등의 枝葉의인 것을 追末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닦긴 義理를 깨우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義理란 心性 따위를 말한 것이 아니고, 古人들이 創法立制한 깊은 意圖에 있는 것이다.
- 2 孔子의 偉大함은 그가 創敎한 데 있음을 말해 주어 사람들에게 創作精神을 鼓舞하였다
3. 僞經考를 통해 이미 諸經의 많은 部分이 劉歆의 僞作임을 말했고, 다시 改制考에선 眞經의 모두가 孔子가 託古하여 遂行한 作品임을 말함으로써 數千年 以來 모두가 神聖不可侵의 것으로 여겨오던 經典에 對하여 根本의으로 懷疑를 惹起케 하여 學者들에게 批評하는 態度를 일으켜 주었다.
4. 비록 極力 孔子를 推崇하였지만 孔子의 創學派와 諸子의 創學派가 同一한 動機, 同一한 目的, 同一한 手段에서였다고 말함으로써, 孔子를 諸子와 對等한 列에 놓고 學者들로 하여금 比較 研究케 하였다.

그러니, 改制考에 있어서도 僞經考가 그랬듯이 많은 問題性을 안고 있어서 古文學派의 強力한 反撥을 免치 못하였다. 그 問題性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민을 들어 본다.

첫째, 孔子를 尊崇하여 聖師·素王으로 받든 일은 좋았지만, 聖人인 孔子가 果然 周를 背叛하는 內心을 품고 改制를 構想할 수 있었겠느냐는 點이다. 그리고 素王의 說도 그의 弟子가 그의 學說을 擧立하여 指稱한 稱號이지, 孔子가 素王의 地位에 自處하진 않았다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둘째, 六經은 各其 나뉠대로의 長點이 있는데, 唯獨 公羊傳만을 내세워 六經의 모두를 公羊 改制說의 안에 內包시킬 수 있었겠느냐는 點을 들 수 있다.

21) 「昔孔子既作春秋以明三統, 又作易以言變通, 黑白子丑相反而皆可行, 進退消息變通而後可久。」

22) 梁啓超著 清代學術概論 p.131·132 參照.

셋째, 春秋經에도 公羊傳에도 孔子가 改制한 事實의 記錄이 없고, 그리고 秦漢 當時에도 이와 같은 說이 없었던만, 董仲舒와 何休가 이 說을 定立하고 公羊傳을 말하였다 하여 이를 全幅 받아들이는 일이 無理하지 않겠느냐는 點을 들 수 있다.

四. 結 論

康有爲가 學術的인 面에서 一次的인 成効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넓고 깊은 知識을 바탕으로 한 위에, 眼目을 世界的인 次元에 두어 世態와 時勢를 觀察하였다는 點이다. 그는 中西 文化에 各其 나름대로의 優越性이 있음을 看破, 西學을 배우는 일에 吝嗇하지 않았고, 西洋으로부터 그네들의 文化, 文明, 특히 物質科學을 輸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은 곧 人類가 大同世界로 向進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라고 見解를 披瀝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는 中國의 清末 近代化의 先驗者로서 登場 活躍하게 된 것이다.

康有爲 思想의 主軸은 結局 두 가지 系統으로 要約할 수 있겠는 비, 그 하나는 理想的인 大同思想의 追求요, 또 하나는 現實的인 政治 革新을 推進하는 일이었다. 그의 이와 같은 思想은 그가 重要한 兩種의 基本觀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人類의 來源을 相同하기 때문에 나라이부터 平等하며, 따라서 最終的인 人類 世界는 모름지기 一切가 平等해야 한다.

둘째, 人間이 追求해 온 값있는 經路는 恒常 人類가 헤쳐 온 文化의 產物이었던 것으로, 이는 人間들의 叡智에 依하여 發展해 왔다. 이는 밖으로부터 누가 賦與해 주는 것도 아니고 先天的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現實 世界에 있어서 一切의 制度和 道德 觀念, 倫理의 價値 尺度 等은 그때그때 適宜하게 變化되고 改革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人類의 環境과 需要에 副應키를 追求해야 한다.

康有爲는 以上과 같은 基本觀念을 바탕으로 人類 進化에 關한 所信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追求한 思想의 指標를 단적으로 말하면, 現實的으로 社會制度 改革을 通해 環境 秩序의 確立 乃至는 人間生活의 滿足을 圖謀하고, 나아가서는 世界大同이란 理想的인 段階로의 發展을 企圖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思想的으로는 먼저 救世濟人의 理念下에 그의 哲學 理論을 樹立하였고, 學術的으로는 變法 思想에 바탕을 두고 孔子가 託古改制한 說法을 定立키에 이른 것이다. 그렇기에, 康有爲는 嚴格히 말하면, 한낱 政治思想家이지 哲學家가 아니며, 또한 當初 精細한 經學의 考證이니 研究에 뜻이 있었던 學者리기도 볼 수 없다. 다만 그의 特出한 表現과 理論이 哲學的인 面에서 다루어졌으므로, 經學 方面에 큰 業績을 남겼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그의 僞經에 對한 見解나 孔子 改制의 學說도 한낱 그의 政治思想을 펴기 爲한 基

隨 作業으로서 遂行된 데 不過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康有爲가 公羊學을 根據로 그의 論理을 展開하였으면서, 公羊家の 理論이라 하여 全幅的으로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²³⁾ 自身の 意見에 符合하는 部分만을 引用 採擇하고, 符合치 않는 것은 버리었다 何休의 影響을 많이 받은 康有爲였지만, 何休처럼 春秋와 孝經을 同等視하질 않았다. 康有爲는 大同思想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孝經에 對해 言及하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 또 董仲舒를 極히 尊敬한 康有爲였지만, 觀點이나 見解가 相反되는 대목²⁴⁾에 이르러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平生에 걸쳐 孔子를 가장 尊敬하였고, 孔敎를 國敎로 定立하리던 그였으면서도, 孔子의 思想中, 小康·大同思想과 關係가 있는 〈仁恕〉에 對해선 重視하고, 〈禮〉에 對해선 그리 重視치 않았다. 그리고 어느 한 經典에 對하여 重視한 程度도 때에 따라, 또는 必要에 따라 달리했다. 그 例로, 그가 長興學記 中에서는, 學問 樹立의 宗旨를 밝힌 經典이라 하여 論語를 經典 中에서 가장 높이 評價하였지만, 易經을 推崇한 段階에 이르러서는, 易經이야말로 孔子의 所作으로 가장 根據로 해야 할 經典인 것이며, 論語는 語錄에 不過하다고 말한 바를 指摘할 수 있다. 가장 靚한 것으로는, 한 때 六經 中, 易經과 春秋만이 孔子의 所作이고, 詩·書·禮·樂은 孔子가 先王의 典籍을 刪述한 데 不過하다고 했던 見解를 바꾸어 後日 改制考 執筆에 이르러선 六經은 모두가 孔子 所作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一聯의 見解는 康有爲가 政治家로서 또는 政治思想家로서 目的 意識을 가지고 學術 研究에 臨했다는 뜻과, 하나의 主見을 設定해 놓고 中國의 傳統 學術의 속에서 根據를 찾으려 했었다는 點에서 그 緣由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런 努力 끝에 그는 結局 公羊傳에서 兩種의 重要한 觀念: 改制說과 三世說을 찾아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康有爲의 著書를 理解하거나 그의 思想을 論할 때에, 반드시 留意해야 할 일은, 그가 展開하여 이룩해 놓은 理論의 結果보다 그에 앞서 設定된 假設이나 그의 目的 또는 動機를 把握해야 한다는 點이다. 事實上 그는 經學者로서도, 政治家로서도, 그리고 思想로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宗教家·人類學者로서도 그 業績과 功이 燦燦하다. 그것은 그를 보는 사람의 觀點과 角度에 따라서 視野에 들어오는 그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近代 今文學者의 中心 人物로 君臨한 그있기에, 비록 그가 偉大한 經學者로 指稱되는 것은 너무도 當然하다. 그는, 마치 孔子가 自己 理想을 바탕으로 既往의 學問이니 文化財를 새로이 整理 集大成하였듯이, 從來 學者들이 學問에 臨하던 勢를 止揚하고 새로운 價值 賦與를 是圖하는 劃期的인 作業을 遂行하였다. 그러나, 그는 經典의 考證에서, 또는 理論

23) 康有爲가 「何氏糾繆」를 著述한 것은 公羊學의 理論을 攻駁하기 위해서였으니, 後에 公羊學을 根據로 하여 見解를 披瀝하기에 이르러서는 自家撞着임을 깨닫고 態度를 바꾸었음.

24) 董仲舒의 「屈民而伸君, 屈君而伸天, 春秋之大義也。」에 對하여 康有爲는 民權思想에 背馳된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음

의 展開에서 無理와 不合理을 自認하면서 敢行하였다. 이는 그가 經學家로서가 아니고, 自身이 가지고 있던 變法理論과 人類社會의 理想化 追求라는 觀念을 實現하기 爲한 方便으로 다시 말해서 自身の 政治思想을 合理化하고 貫徹하기 爲한 目的의 下에 遂行된 不得已한 經典 研究作業이었기 때문이란 點을 指摘할 수 있겠다.

그러니, 그가 남긴 學術的인 研究의 業績은 至大하다. 비록 政治思想 具現의 基礎 作業으로서였거나, 또는 그 遂行 方法이 獨善的이고 지나친 武斷에 偏重되었거나 間에, 그의 求學精神과 嚴正한 研究姿勢, 그리고 說得力 있는 理論의 確立 등은 學界에 커다란 波紋을 던졌고, 많은 知識人들의 同調와 糾습을 얻었으며, 하나의 學統을 樹立할 수 있기에 이르렀다.

後日, 그의 門人 梁啓超가 中國學術史, 思想史를 體系化하여 整理한 일이라든가, 胡適과 錢玄同, 顧頡剛 등이 西周 以前の 古代史 研究에 그의 學說을 間接的으로 받아들인 등은 모두 그가 啓導한 學問의 結實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當時 또는 後日에 康有爲가 끼친 影響은 컸다. 그래서 梁啓超는 康有爲의 代表的인 著作物인 新學僞經考와 孔子改制考가 學界에 던진 影響力에 對해 各各 회오리바람과 火山의 噴火와 같았다고 比喻하여 말하였던 것이다.

《Abstract》

On Confucian Ideas of Kang You- Wei

Wan-Shik Choi

Kang-You-Wei who took the lead in the Wu-Xu political change at the close of Qing Dynasty had greatly contributed to ushering in a new epoch of Chinese modernization as a man of both political ideas and Confucian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his Confucian ideas through a comprehensive research of his predecessors who had influenced him in his theorization and his major publications.

There are three scholars who had exercised a decisive influence upon his theorization. Zhu Ci-Qi laid the foundation of his theories and fostered his graceful and virtuous personality. Liao Ping suggested the way for the development of his Confucian theories into political ideas, thus it might be said that his later publications are nothing but the systematization of Liao's theories. Lastly, Zhang Yan-Qiu enlarged his acquaintance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odern times and the issues of the day.

Of his copious writings *Xin-Xue-Wei-Jing-Kao* and *Kong-Zi-Gai-Zhi-Kao* are the most important works. Through these two works he presented his own theories f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lassical Canon. He ranked Confucius as an absolute sage, and at the same time he maintained that the social institutions be re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of the times, as Confucius did.

Liang Qi-Chao, his disciple, compared him to a whirlwind, a volcanic eruption and an earthquake because of his notable contribution to the academic world, while his theories were so dogmatic and absurd that the great impact on the orthodox Confucians led to their counterattacks.

What is most important in interpreting his theories is from which angle they are viewed; he can be a great Confucian, a man of political ideas, a religionist or an anthropologist depending on one's viewpoints. However, it is obviously true that his theorization was not so much for the sake of Confucian study as for the reformation and idealization of human society. In other words, it was for the purpose of justifying his own political ideas that he had pursued inquiries into the Classical Canon, which resulted in so dogmatic an interpretation of the Classical Canon and the absurd theorization.